

보 도 자 료



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◆ 담당자
강민구 극지연구소 문화홍보실장 ☎032-770-8631
이어진 대한극지의학회 총무이사 ☎010-8606-4932
- ◆ 2021. 9. 8. (수) 배포
- ◆ 총 4쪽 (본문 3쪽, 첨부 1쪽)

남극 코로나19? 우리가 대비한다

극지연-대한극지의학회, 제12회 대한극지의학회 학술대회 개최

- 극지연구소 (소장 강성호)와 대한극지의학회 (회장 서창식)는 8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극지연구소에서 제12회 대한극지의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한 극지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자리이다.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백신이 개발되고 관련 지식도 쌓였지만, 감염병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면서 극지로 가는 과정, 극지에서의 활동에 방역과 예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.
- 대한극지의학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국내 감염병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.
- 정현수 연세의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'의료시설 안팎의 감염재난 발생 시 기관 차원의 대응책'을 주제로 초청 강연에 나선다. 특히 외부와 고립된 남극의 특수한 환경에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응급실 환자선별과 한정된 자원 활용체계 노하우를 전할 예정이다.
- 진범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의학센터장은 코로나 치료 전문가로, 작년 코로나 초기부터 국내 환자 치료 경험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.

- 이관 동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겸 민간역학조사관은 코로나19 백신 경험과 향후 전망을 소개하고, 최우성 가천의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의학 관점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파견 의료진 선발에 대한 내용을 공유한다.
- 이어진 여수출입국사무소 의무과장은 해외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감염 현황과 대책을 발표한다. 비행기를 타고 남극에 가려면 최소 1~2개 나라를 지나기 때문에, 남극까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동 중 대비가 필수적이다.
- 현재 남극에서 근무 중인 의료대원들은 기지에 설치된 코로나19 방역 설비와 대책을 설명하고, 올해 말 국내 복귀 과정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. 장기간 남극에 파견돼 생활하는 경우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.
- 극지연구소는 2개의 남극과학기지와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운영하고 있으며, 연구원 등은 이 시설들에서 짧으면 수개월, 길면 1년 넘게 외부와 떨어진 채 생활한다.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지만, 인원수가 제한돼 여러 질환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.
- 홍종원 연세의대 성형외과학교실 연구팀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확장현실 기술을 소개한다. 확장현실 (XR eXtended Reality)은 증강현실(AR)과 가상현실(VR)을 포괄하는 기술로 국내 전문가로부터 가상 공간에서 치료법 등을 공유 받을 수 있어서 미래 남극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대한극지의학회는 극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극지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문제들을 연구하기 위해 극지를 경험한 의료진들이 주축이 돼 지난 2014년 창립됐으며, 대한민국 극지의학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.

-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발표자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참여할 계획이다.

- 강성호 극지연구소 소장은 “극지의학은 혹한의 환경에서도 외부활동을 가능하게 한 최소한의 안전장치”라며, “이번 학술대회가 안전장치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고, 미래 극지연구 분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”고 전했다.

붙임1. 대한극지의학회 로고



